☞ 17면에서 계속

이 있으면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올바르게 이 공부를 안하고 못한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의식들도 폭바로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의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면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알고, 잘못되고 잘된 것도 알고, 슬기롭게 하는 것도 알고, 지극하고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 한 군데에다가만 믿고 몰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의식들도 하나하나 자꾸자꾸 깨우쳐지게끔 이끌어지죠.

마음으로는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걸림이 없는데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려고 하니깐 걸림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라는 자기 불성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놈이 너를 지금 끌고 다니는 거고 리드하고 가는 거다.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놔라. 거기다 놓고 굴려라. 놓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 감사하게 놓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되게 하는 것도 그 자리라 하고 돌려서 놓고, 자꾸자꾸 이렇게 해야 더 이해가 가고, 그렇게 마음공부를 하다보면 지나가다가 돌 한 짝을 발로 찼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스승인 줄을 알게 되고, 돌하고도 둘이 아닌 줄을 알도록 자꾸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고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밝게 안 보여…

문 스님, 저는 스물 아홉 살의 청년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뻔뻔함, 일반적인 견전한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회생활에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칩거중입니다. 진정 이러한 곳에 저를 묻고 살기에는 정말 마음고생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들 적응하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런 세상의 작태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삶이 구차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게 인간의 업일까요? 아니면 저만의 업일까요? 그렇다고 제 자신이 정말 깨끗한 인간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대해 밝은 면이 보이지 않으니 막막하군요. 이런 게 세상이려니 하고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답 누구나가 다 세상이 흔쾌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초년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저것 부당한 것이 많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들 모르고서 업식에 놀아나며 사는 모습에 애틋한 정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 부처가 없으면 사람이 없다고 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업식으로 뭉쳐진 중생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움죽거릴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을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중생과 부처가 어디 둘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구더기의 마음을 먹었거나 짐승의 마음을 먹었다면, 지각이 없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조그마한 소견으로 들입다 싸우고 증오하고, 사랑한답시고 남을 죽이고 그렇게들 살게 되겠죠.

세상의 부모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되려고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전부,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보살로서 응할 수가 있고, 천백억화신으로서 들고 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버이가 되려고 애쓰지도 말고, 어버이가 안되려고 애쓰지도 말고 자식이 부모에게 다기대고 사는 그 믿음, 부모가 다 줄 수 있는 그 마음, 자비, 이런 것이 똘똘 뭉쳐서 그냥 오가면서 구르고 굴러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핵이 되고, 여러분의 불기둥이 되며, 그게 여러분의 불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뱃속에, 오장육부 세포에 들어 있는 업식으로 뭉쳐진 그 중생들이 아무리 거기다 대고 쪼아도, 어떠한 액난이라든가, 어떠한 업이라든가, 어떠한 병고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속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전자에 살 때 선과 악을 지은 업식으로써 모두 나에게 뭉쳐진 것이니까, 내 거기 속아서는 안된다 하고 어떠한 걸로 보이더라도, 어떠한 말이 들리더라도, 어떠한 생각이 나더라도, 무엇이든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감사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하고 관하는 겁니다.

또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서 세세생생에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립을 한다면, 그러고 뭉쳐 놓는다면, 과거 카셋트에 녹음했던 노래가 다 없어져도 현재에 넣는 새 노래가 또 들어가서 담기는 거나 같게 됩니다. 과거에 지은 인연이며 생각의 고리들을 녹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항상 그릇은 비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우주 삼라만상에 어떠한 거든지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내뇌줘도 줄지 않는 그런 원통력을 스스로 얻어야 참인간으로 사는 본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인공이 내 주인공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끌고 다닐 거다 하고 믿고 맡겨놓을 때, 그리고 아주 속상해서 골이 보기 싫더라도 좋은 말을 해주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데로 이끌어 준다면 따뜻한 데로 고이기 마련이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자리를 해준다면 바로 시원한 데로 앉을 것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바뀌니까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멋진 수행처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이 직장이라는 공부의 재료를 가지고 만가지 맛을 내서 융통성있게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남편이 술 많이 먹는데…

문 남편이 술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나가서는 상사들 눈치보랴 사는 것이 오죽 고달프면 저러겠나 싶어 많이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선원을 알게 되어 이렇게 다니다 보니 그것이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의식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라 생각하니 더 진작에 마음을 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관하여 건강한 모습을 찾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운이 세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다가 아마 반 이상 잘못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될대로 돼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될대로 돼라 이러고 술 마시고 이리저리 다니고 이러다가 자기 생각 자체가 그만 자기 몸뚱이의 의식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막 곤드레만드레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속에서 자기 소임 맡은 것을 제대로 해나가지 않는 거죠. 이쪽에서 술을 먹으니까 그쪽에서도 술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생들에게도 술을 먹이는 거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요 입만 빌리고 식도만 빌려서 말입니다. 그러니 식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다 그냥 먹게 되고 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먹게 되고 소장 대장 방광 뭐 간 쓸개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전부 다 먹게 되죠. 다 먹게 되니까 서로 다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버려가더니 얼마 안 있다가 쇼크를 받아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자기를 자기가 지켜나가려면 자기 한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몸이 뭐냐 하면 혹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가 내 국토예요. 여러분의 국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그 국토 안에 내 중생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구 안의 사람들처럼, 은하계의 별처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토를 올바로 지키려면 한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망했다 하더라도 허허 하고 빙긋이 웃고 말입니다. '허, 이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사람이 나왔으면 사는 수가 있는 거지 뭘 그래!' 하고선 탁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여한 마음, 그것이 살리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리지 않게, 저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이끌어,' 하고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그냥 믿고서 지켜보는 겁니다.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간다면 그 달구지의 짐이 말하자면 자기 과거의 짐인 셈이죠. 그래, 그 짐을 다 실었거든요. 그런데 달구지를 치는 거예요. 몸뚱이를 치는 거죠. 소를 쳐야할 건데 자꾸 달구지를 치는 거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구질 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집니까, 소가 갑니까? 구르지를 못하고 달구지만 부서지죠.

그런 거와 같이 모두 자기 안에 자기 씨가 있고, 그 소는 바로 안에 있으니 소를 쳐야지 내 몸뚱이가 나라고 하고 나를 자꾸 볶아대면 달구지가 망가질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 몸뚱이가 하는 것을 탓하고 그 몸뚱이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마음의 근본과 통신하여 모든 것을 인의롭게 해나가라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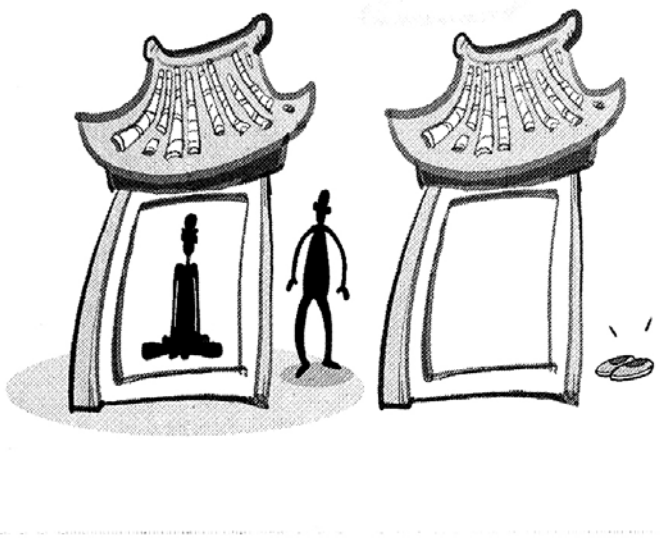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을 밝게 살아가려면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둘 아니게 본다면 사회가 멋진 수행처

남편 건강 찾아주고 싶어

'하늘이 무너져 망한다 해도 솟을 구멍은 있겠지' 하고 탁 놓을 수 있는 믿음 필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 약재로 쓰는 나무의 액기스로 만든
대나무수액 시트
(우리대나무죽초시트)

발에 붙이면 건강해 집니다
마디식물대나무가
관절(마디)를 돕는다
발바닥은 인체반사구의
집합소 죽초가 목초보다
성분이 강하다
※ 불자님께 사은 선물
100매 구입시 W90,000
숯팔지 9미리 단주증정 (판매가 W45,000)
수량한정품
(보석같이 단단한 비장탄으로 깎은 수가공품)
(병을 고치려면 먼저독을 빼라 : 책증정)
숯을 전문연구개발하는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송금 조흥은행 359-03-004847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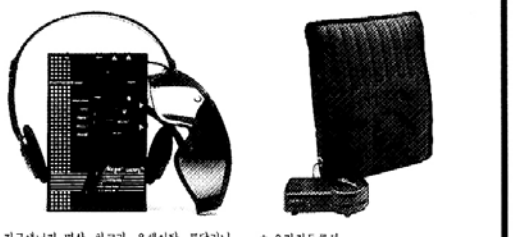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봉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바지 적삼 조끼 ■ 구김없이 세탁이 용이한 재질 W130,000 ■ 순면(무늬있는 먹물) W130,000
■ 마 W150,000
■ 모달사 W150,000
■ 모직 W130,000
두루막 ■ 마 W130,000 ■ 모달사 W140,000 ■ 모직 W120,000
중방 ■ 마 W130,000 ■ 모달사 W130,000 ■ 모직 W110,000
조끼 몸빼 W50,000
셔츠 라운드 차이나 W30,000
※ 장삼, 가사, 비단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옆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문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지자이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펄싱)
* 오라진동루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펄싱)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펄싱)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쇠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쇠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선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론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